

정부, 가축분뇨 '에너지 대전환' 시동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하동 화력발전소 방문... 고체연료 활용 확대 논의

정부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본격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발표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예정인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이 방문한 하동빛드림본

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연간 18.4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다. 현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설비 보완을 진행 중이며,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상업 발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들은 현재 목표인 연간 100만 톤을 넘어 더 많은 물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발전설비를 고체연료에 적합한 구조로 개선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발전 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관기관과 생산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시설원에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고체연료 보일러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순천축협 등 생산 주체들은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비 운영비 부담과 물류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운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핵심 설비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발전사와 한전이 제안한 설비 개선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가축분뇨를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마을기업협회 정기총회 열려

성과 공유 · 공로패 전달 ·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유치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의 전북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북마을기업협회는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 내역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로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마을기업협회는 지난 10년간 도내 마을기업과 함께 지역 기부연말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6,946만 원, 2024년 5,138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들의 현안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



제안하는 역할도 맡아오고 있다. 협회는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가운데 하나로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의 전북 유치를 제시했다. 해당 박람회는 마을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기업 행사다.

전북은 농생명·식품·관광·문화·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이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마을기업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반 경제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다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지로써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동심협력'으로 희망농업 · 행복농촌 실현 다짐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농업인 실익 중심의 경영과 지역 농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5일 회원 조합장 20명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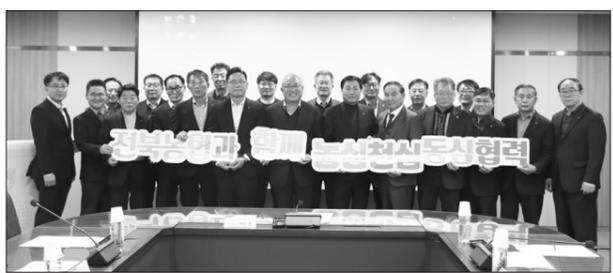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

경 속에서 지역 농·축협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농업인 중심의 실익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허수종 회장은 "전북 농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영인 조합장들이 중심이 돼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지역 농·축협 간 소통과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 현장 중심의 농협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위생 · 안전 특별점검

전북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설 명절 기간을 대비해 오는 2월 11일까지 도내 농·축협 축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추진됐다. 농·축협은 수시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전북농협 지역본부는

20곳 이상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반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이력번호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폐기물 관리 상태, 작업장과 축산물의 위생 상태, 병동·냉장보관 및 관리 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위생복·위생모 착용 규정 이행 여부, 위생교육 이수증과 보관증 관리, 삼겹살 품질 관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오상근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김제 시설 감자 · 딸기 농가 방문 점검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한파와 강풍에 대비해 전북 김제 지역 시설 감자와 딸기 농가의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광활면과 백구면에 위치한 시설 감자·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이어진 한파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작물 생육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청장은 농가와 관계자로부터 겨울철 시설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 수요를 청취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승돈 청장은 "아직 한파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열풍이나 고체연



료 등 난방 장비를 적극 활용해 시설 내부 온도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예찰로 바이러스병이나 곰팡이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촌진흥청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육 동향 점검과 기술 지도를 한층 강화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선도 ·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5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의 대표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운영 방향 △신규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신청서 작성 방법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프로그램과 수행 절차 △기술개발(R&D) 및 자율 프로그램 등 세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특히 2026년부터

변화되는 지원 체계와 개편된 사업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이중환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전북의 미래 산업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설상회 사무처장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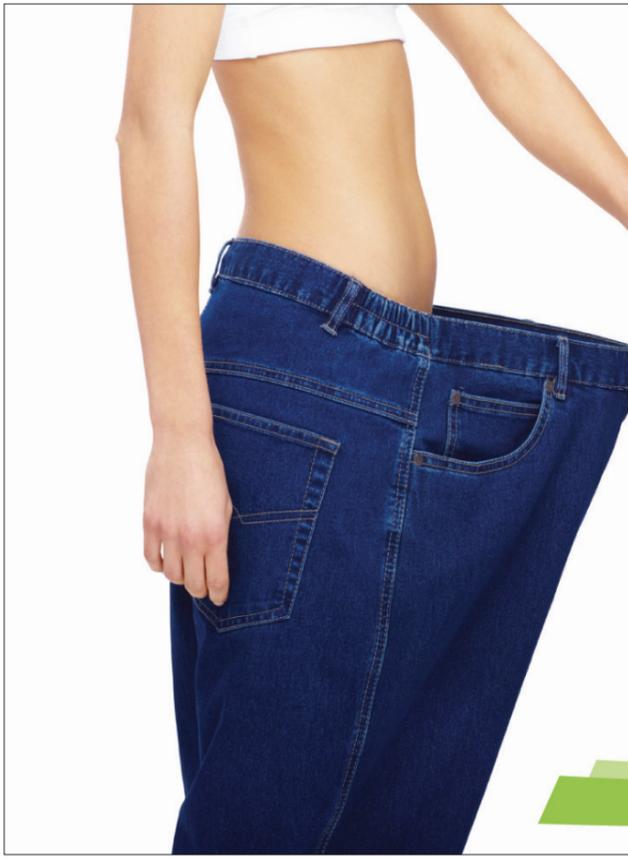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장 이상희(사진)를 사무처장에 임용했다.

설 사무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신으로, 건설·주택·재난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기술 행정 전문가다. /오상근 기자

1966년 9월 1일생인 설 사무처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며 건설·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이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직에 몸담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장 경험과 정책 기획 능력을 겸비한 설상회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지역 건설 행정과 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